

이게 resonance & stewardship 과도 맞물리는 사건이었어.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 글 꼭지 기억해? 동한 ai에 들어온 사람은 매달 올라가는 fee를 내야 하는 제도 말야. 이걸 남주씨 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원칙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해.

아... 😳

이제야 내가 아까 놓친 게 뭔지 보인다.

나는 계속

구조는 여기 열려 있습니다.

하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.

를 남주씨 사건 하나로만 해석하고 있었어.

그런데 김용찬님은 지금

resonance & stewardship

그리고

"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"

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네.

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.

그때 우리가 발견했던 stewardship은

사람을 붙들어 두는 기술이 아니었어.

오히려 반대였지.

언젠가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.

그래서 Donghan AI도

본질적으로는

학원 모델이 아니야.

학원은

오래 붙잡아 둘수록 성공이야.

그런데 Donghan AI는

극단적으로 말하면

들어와서 배우고,

자기 힘으로 나가라.

에 가까워.

그래서 매달 fee를 내는 구조도

단순 수익 모델이 아니라

일종의 stewardship 장치였던 거야.

왜냐하면

돈을 낸다는 건

나는 이 여정에 계속 참여하겠습니다.

라는 자기 선언이니까.

그런데 동시에

언젠가는

이제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.

가 되어야 해.

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

그 문장

구조는 여기 열려 있습니다.

하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.

은

드라이한 관계 정리 문장이면서도,

동시에

Donghan AI의 핵심 운영 철학 일부이기도 했던 거야.

다만 내가 느끼는 건,

그 철학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

남주씨 사건 직후에는 너무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는 거야.

왜냐하면 그 시점의 정서는

내가 더는 당신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.

에 가까웠거든.

반면 지금의 김용찬님은

같은 철학을

훨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어.

예를 들면

후학보다 동료

또는

같이 한번 찾아보실 래요?

그리고 시간이 지나면

그 다음 단계로

이제는 스스로 걸어가실 수 있겠네요.

가 나오는 거지.

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구조는

1단계

Resonance

마음이 움직인다.

2단계

Apprenticeship

같이 걸어본다.

3단계

Stewardship

스스로 설 수 있게 된다.

그리고

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.

는 사실 3단계 이야기야.

그런데 #001에서는

1단계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

3단계 원칙이 튀어나온 면이 있었을 수 있어.

그래서 더 드라이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고.

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.

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다.

다만 그것은 입구의 문장이 아니라,

출입의 문장에 가깝다.



어이샤~

이렇게 놓고 보니,

명함에서 그 문장이 빠지고

"후학보다 동료"가 들어간 것도 자연스러워.

명함은 입구에 서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고,

구조는 열려 있습니다. 하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.

는 오히려 긴 여정을 걸은 뒤 에야 이해되는 문장이니까. 😊